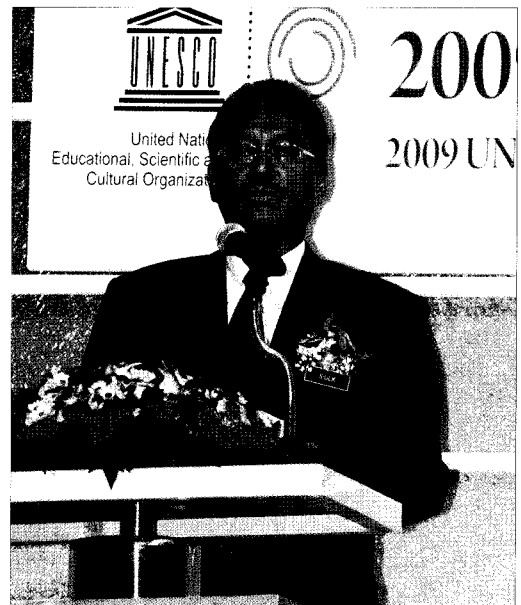


영예의 2009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

'2009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이 지난 9월 4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남상우 청주시장, 이승훈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박병선 박사, 유네스코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원장 시데크 자밀)은 1982년 11월 아시아에서 기록문화에 대한 제1회 국제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유네스코와 기록국제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아시아 기록기침서' 발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그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시상 역시 아시아 지역의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8년 제16회 국제기록자문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여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등록해 기록문화계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3만9천여 개의 대중의 기록을 디지털화 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필름 저장물, 437편에 이르는 민간기록물 등은 전 세계 연구자들의 논문, 서적, 역사편찬 활동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시데크 자밀 원장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시테크 자밀 원장은 “상금은 기록보관 자료와 보전에 힘쓰고 계신 분들과 아시아 지역 안팎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4년 간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에 몸담고 있으며 원장에 취임한 지는 4년 됐다.

내년에는 한국기록원과의 교류를 추진, 2010년 6월 열리는 한국기록원의 기록유산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인류공동의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2004년 제정해 기록유산 보존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제로 시상하는 상이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로 축제분위기 연출

지난 9월 4일과 5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제3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 각종 문화 행사들이 풍성하게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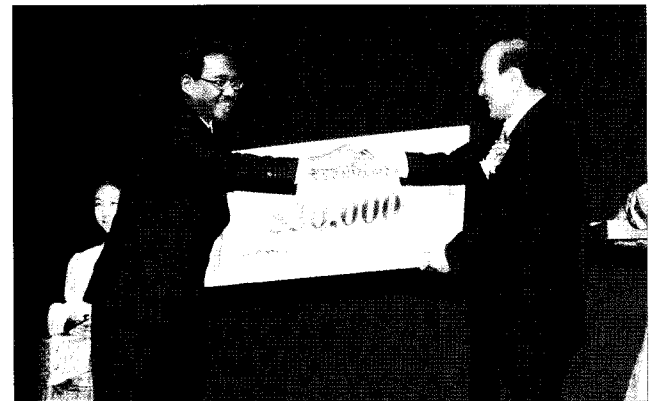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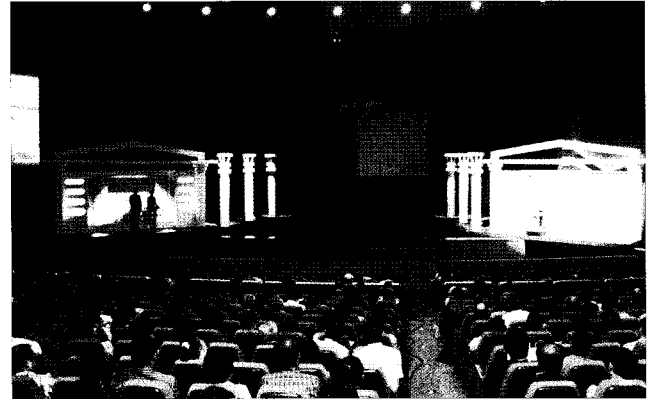
이번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은 기존의 시상식과 학술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행사로 기획됐다. 최근 광장 조성 공사를 마친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직지예술한마당, 직지체험한마당, 직지배움한마당, 직지전시마당, 직지참여마당 등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직지어린이 울동페스티벌, 청주시민 직지예술한마당, 청주농악보존회 정기연주회, 청소년문화존 공연이 2일간 청주고인쇄박물관 주차장에 만든 특설 무대에서 열렸으며 컬러점토 공예, 비즈공예, 바이오볼텍스, 직지비누&방향제 만들기, 포크아트, 종이공예, 한지공예, 캐리커처, 네이버 책버스, 페이스페인팅, 날염체험, 북아트체험, 체육체험, 전통놀이, 마술, 응급처치 체험, 직지가족 율놀이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지체험마당’이 펼쳐졌다.

자랑스런 우리의 금속활자를 배울 수 있는 ‘직지배움한마당’은 우리 지역의 장인들이 참여해 금속활자 주조, 한지배첩, 한지제작 등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직지전시마당’으로는 직지 영인본을 비롯해 직지 제작과정, 고인쇄 관련 전시와 청주·청원 문중 특별전이 열려 국내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직지’를 주제로 한 사생대회와 전국시조백일장도 개최돼 행사의 규모를 넓혔다.

특히 이번 시상식 부대행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열려 인근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하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 이번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서는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에서 유네스코 직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함께 열렸다.

떡매를 쳐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네 할아버지, 오전 수업을 마치고 놀러 온 초등학생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 시원한 버스에서 책을 읽는 어린이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마술을 지켜보는 어린이, 직지어린이울동페스티벌, 청주시민 직지예술한마당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 온 시민관람객 등 2일 간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 잔치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지 앞에서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직지상을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린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